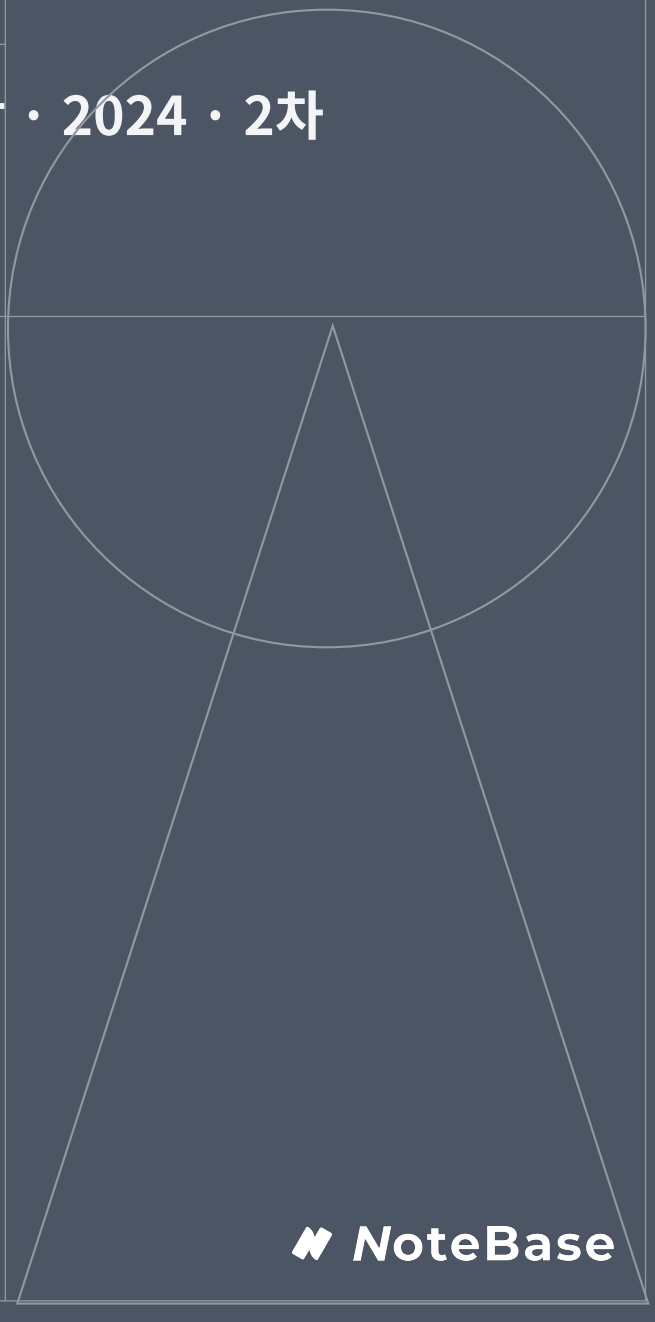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4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4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4 · 2차

문 1. 심리학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는 직업현장에서 사원의 효율적 선발과 훈련, 생산성 고양 등 적응력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② 학교심리학자는 학생, 부모, 교사 등에게 심리학적 도움을 제공해 학생들이 교육장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임상심리학자는 심리검사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약물 처방을 통해 심리장애를 치료한다.

④ 법심리학자는 법이나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자로 경찰, 변호사 및 법원에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심리학의 주요 응용 분야별 역할을 구분하고, 임상심리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산업 및 조직심리학은 직무 수행과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배치, 훈련, 평가를 다루는 분야이다.
학교심리학은 학생이 교육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학습, 정서, 행동 문제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분야이다.
임상심리학은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로 심리적 어려움과 장애를 평가하고 개입하는 분야이다.
법심리학은 법과 범죄 장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사, 재판, 교정 과정에 심리학 지식을 적용하는 분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는 인재 선발, 교육훈련, 직무 적합성, 생산성 향상처럼 조직 장면의 효율성과 적응을 다루므로 설명이 맞다.
2번: O. 학교심리학자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함께 지원하면서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 환경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설명이 맞다.
3번: X. 틀린 표현은 '때로는 약물 처방을 통해'이다. 임상심리학자는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수행하지만 약물 처방 권한은 일반적으로 의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있다.
4번: O. 법심리학자는 범죄와 법적 판단에 관련된 심리 문제를 다루며 경찰, 변호사, 법원에 자문하거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임상심리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한 직군처럼 섞어 내는 점이 함정이다.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는 임상심리학의 핵심이지만 약물 처방은 의학적 면허의 영역이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심리학 분과 문제는 먼저 장면을 본다. 조직 장면이면 산업 및 조직심리, 학교 장면이면 학교심리, 치료 장면이면 임상심리, 법과 범죄 장면이면 법심리로 연결한 뒤, 약물 처방처럼 의료 면허가 필요한 행위가 섞였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임상심리학은 검사와 치료, 약물 처방은 의사 영역이다.

NoteBase

문 2.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문조사법(survey method):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심층적이며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

② 상관법(correlational method): 하나의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③ 자연관찰법(naturalistic observation): 관찰자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없이 단지 무엇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④ 실험법(experimental method): 연구자는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을 조작하고 그 결과 종속변인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심리학의 대표적 연구 방법을 정의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문조사법은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문항을 사용해 태도나 의견, 특성을 폭넓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사례연구법은 특정 개인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상관법은 두 변수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인과관계는 직접 밝히지 못한다.
자연관찰법은 연구 대상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실험법은 독립변인을 조작하고 그 결과 종속변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통제된 조건에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심층적이며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이는 설문조사법이 아니라 사례연구법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법은 실제로는 다수의 응답자에게 동일하거나 표준화된 질문을 제시해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② O: 상관법은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얼마나 함께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은 알 수 있지만,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③ O: 자연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장면에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인위적 조작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O: 실험법은 통제된 조건에서 독립변인을 조작하고 그 결과 종속변인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인과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설문조사법과 사례연구법의 대상을 뒤바꿔 놓은 선지이다. '다수에게 표준화된 질문'이면 설문조사법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집단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 사례연구법이라는 구별이 흐려지면 쉽게 틀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 방법 문제는 먼저 조사 대상이 다수인지 특정 개인·소집단인지, 연구자가 변인을 조작하는지, 단순 관찰인지, 변수 간 관련성만 보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대상의 범위와 연구자의 개입 정도를 먼저 보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설문조사법은 넓게 묻고, 사례연구법은 깊게 본다. 상관법은 관련, 실험법은 인과, 자연관찰법은 무개입 관찰이다.

NoteBase

문 3.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45인승 버스는 장난감처럼 작아 보인다. 그러나 그 버스가 일단 45인승 버스로 지각된 이후에는 실제 사람이 타는 버스로 인식된다.

① 집단화(grouping)
②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③ 항상성(homeostasis)
④ 지각항등성(perceptual constancy)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리가 멀어져 망막상은 작아져도 대상의 실제 크기를 비교적 일정하게 지각하는 지각항등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각항등성은 자극 조건이 달라져도 대상의 크기, 형태, 밝기 등을 비교적 일정하게 지각하는 현상이다.
이 문항은 그중에서도 멀리 있는 버스가 망막상으로는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큰 버스로 인식하는 크기항등성 사례이다.
집단화는 여러 자극을 하나의 덩어리나 패턴으로 묶어 지각하는 게슈탈트 원리이다.
조절초점은 목표를 추구할 때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중 어떤 동기 체계가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항상성은 체온, 혈당처럼 생리적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절 과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집단화는 가까움, 유사성, 연속성 같은 단서에 따라 여러 자극을 묶어 하나의 형태로 지각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버스의 실제 크기 인식을 집단화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멀어져도 실제 크기를 일정하게 지각하는 지각항등성이다.
② X: 조절초점은 목표 추구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동기 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지각 현상을 동기 이론으로 바꾼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 사례는 대상의 크기 지각을 다루므로 지각항등성이다.
③ X: 항상성은 생물체의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리적 조절이다. 틀린 표현은 지각상의 안정성을 생리적 항상성과 혼동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외부 대상을 일정하게 지각하는 것은 지각항등성이다.
④ O: 지각항등성은 거리나 조명 같은 조건이 변해도 대상의 성질을 비교적 일정하게 지각하는 현상이다. 멀리 있는 45인승 버스가 장난감처럼 작게 보여도 실제 사람 크기의 버스로 인식된다는 설명은 지각항등성에 해당한다. 엄밀히는 지각항등성 가운데 크기항등성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작아 보인다는 표면 표현만 보고 단순 시각 인상에 끌리면 ①이나 ③처럼 전혀 다른 개념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처음의 작아 보임이 아니라, 그 뒤에도 실제 큰 버스로 인식된다는 지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극이 변했는데도 대상의 성질을 일정하게 알아보는 설명이 나오면 먼저 지각항등성을 떠올린다. 여러 자극을 묶는지, 동기 방향을 말하는지, 생리적 균형을 말하는지와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멀어져도 실제 크기를 유지해 인식하면 지각항등성, 여러 자극을 묶으면 집단화, 내부 상태를 유지하면 항상성이다.

NoteBase

문 4. 깊이지각을 위한 단안단서(monocular cue)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렴(convergence)
ㄴ. 선형조망(linear perspective)
ㄷ. 상대적 높이(relative height)
ㄹ. 망막부등(retinal disparity)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길이지각 단서를 단안단서와 양안단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안단서는 한쪽 눈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깊이 정보이다. 선형조망은 평행선이 멀어질수록 한 점으로 모여 보이는 단서이고, 상대적 높이는 시야에서 더 위에 있는 대상이 더 멀리 있다고 지각하게 하는 단서이다.
수렴은 가까운 물체를 볼수록 두 눈이 안쪽으로 모이는 정도를 이용하는 양안단서이다. 망막부등은 좌우 눈의 망막상 차이를 이용하는 양안단서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의 수렴은 두 눈의 안구운동을 이용하는 양안단서이고, ㄴ의 선형조망만 단안단서이다. 따라서 'ㄱ, ㄴ'이 아니라 'ㄴ, ㄷ'이어야 한다.
2번 X: ㄱ의 수렴과 ㄹ의 망막부등은 모두 두 눈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양안단서이다. 단안단서만 고르면 이 조합은 제외되고,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3번 O: ㄴ의 선형조망과 ㄷ의 상대적 높이는 모두 한쪽 눈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단안단서이다. 따라서 이 조합이 옳다.
4번 X: ㄷ의 상대적 높이는 단안단서이지만, ㄹ의 망막부등은 좌우 눈 영상의 차이를 이용하는 양안단서이다. 따라서 'ㄷ, ㄹ'이 아니라 'ㄴ, ㄷ'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수렴과 망막부등도 깊이지각 단서라는 점 때문에 단안단서처럼 묶기 쉽다는 함정이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깊이지각 단서인가'가 아니라 '한쪽 눈만으로 가능한가, 두 눈이 모두 필요한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깊이단서 문제가 나오면 먼저 각 단서가 한쪽 눈만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본다. 두 눈의 협응이나 좌우 망막 영상 차이가 필요하면 양안단서이고, 원근·위치·가림처럼 한쪽 눈으로도 판단되면 단안단서이다.

암기 포인트

선형조망·상대적 높이는 단안, 수렴·망막부등은 양안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사례의 제2단계를 설명하는 용어는?

제1단계: 개는 B소리에 조건화된 반응으로 타액을 분비한다.
제2단계: 개의 타액 분비 반응이 B와 유사한 소리인 A와 C에서도 나타난다.
제3단계: 원래의 B소리가 음식과 함께 반복해서 짝지어진다. B소리와 유사한 소리들도 들려주지만 음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B와 유사한 소리 A와 C에 대한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한편, 원래 소리인 B에 대한 타액 분비 반응이 강화된다.

①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
② 자발적 회복(spontaneous recovery)
③ 일반화(generalization)
④ 변별(discrimination)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조건자극과 비슷한 자극에도 조건반응이 나타나는 일반화 개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개는 B소리에 조건화된 반응으로 타액을 분비한다.
핵심 사실 2: 제2단계에서는 B와 유사한 소리인 A와 C에도 타액 분비가 나타난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원래 학습된 자극은 B이지만, 반응 범위가 비슷한 자극으로 넓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일반화는 특정 조건자극에 형성된 조건반응이 그와 유사한 다른 자극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적용 요건은 원래의 조건자극과 새 자극이 서로 비슷하여 학습된 반응이 확장되는 것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타액 분비가 B에만 국한되지 않고 B와 비슷한 A와 C에도 나타나는지를 본다. 핵심은 유사 자극에 대한 반응 확장 여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효과의 법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은 반응이 강화된다는 손다이크의 학습 원리이다. 이 사례의 제2단계는 결과에 따른 반응 강화가 아니라 유사한 자극으로 반응이 퍼지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제2단계'에 효과의 법칙을 적용한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일반화이다.

② X
자발적 회복은 소거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던 조건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2단계에는 소거 후 회복 과정이 없고, 처음부터 B와 비슷한 A와 C에 반응이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회복'이고, 올바르게는 유사 자극에 대한 일반화이다.

③ O
일반화는 B에 학습된 조건반응이 B와 비슷한 A와 C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2단계 설명이 일반화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옳다.

④ X
변별은 유사한 자극들 가운데 강화되는 자극과 강화되지 않는 자극을 구별하여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현상이다. 제3단계에서 A와 C에 대한 반응이 줄고 B에 대한 반응이 강화되는 과정이 변별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제2단계를 변별로 본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제3단계가 변별이다.

오답 포인트

일반화와 변별은 모두 B와 비슷한 자극을 다루므로 쉽게 뒤바뀐다. 제2단계는 반응이 넓어지는 단계이고, 제3단계는 반응이 다시 특정 자극으로 좁혀지는 단계라는 흐름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적 조건형성 사례에서 비슷한 자극에도 같은 반응이 나오면 일반화이고, 비슷한 자극 중 원래 자극에만 반응이 남도록 구별되면 변별이다.

암기 포인트

일반화는 반응 확장, 변별은 반응 선택이다.

NoteBase

문 6. 정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셉 르두(J. LeDoux) 가설: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정서 경험은 피질을 거치지 않고 시상을 경유해 편도체로 직접 이동한다.

② 캐논-바드(Cannon-Bard) 이론: 정서 경험은 신체 반응에 대한 뇌의 주관적 해석의 결과물이다.

③ 제임스-랑게(James-Lange) 이론: 정서 경험은 정서 유발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자각하는 것이다.

④ 샤흐터-싱어(Schachter-Singer) 이론: 정서 경험은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평가라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인 정서이론의 핵심 주장과 연구자 이름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조셉 르두: 위협 자극은 시상을 거쳐 편도체로 빠르게 전달되는 저차 경로가 있어 피질의 정교한 해석 이전에도 신속한 정서 반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캐논-바드: 정서 자극이 들어오면 중추신경계 수준에서 정서 경험과 생리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
제임스-랑게: 정서는 먼저 일어난 생리적 변화를 지각한 결과로 경험된다고 본다.
샤흐터-싱어: 생리적 각성만으로는 정서가 정해지지 않고, 그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더해져 정서가 결정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르두의 저차 경로는 시상에서 편도체로 빠르게 이어져 즉각적 정서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피질을 거치지 않는 빠른 정서 처리라는 설명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정서 경험은 신체 반응에 대한 뇌의 주관적 해석의 결과물이다'라는 설명을 캐논-바드 이론에 연결한 점이다. 이 설명은 생리적 각성과 그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함께 강조하는 샤흐터-싱어 이론에 가깝다. 캐논-바드 이론은 정서 경험과 신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
3번: O. 제임스-랑게 이론은 정서 유발 자극 뒤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자각하는 것이 곧 정서 경험이라는 입장이다. 생리 변화의 지각이 정서를 만든다는 설명이 맞다.
4번: O. 샤흐터-싱어 이론은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평가의 결합으로 정서가 형성된다고 본다. 각성만으로는 어떤 정서인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캐논-바드와 샤흐터-싱어는 둘 다 생리 반응을 다루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캐논-바드는 정서와 생리 반응의 동시성을, 샤흐터-싱어는 생리적 각성 뒤의 인지적 해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서이론 문제는 먼저 핵심 연결어를 찾으면 된다. '동시 발생'은 캐논-바드, '생리 반응의 자각'은 제임스-랑게, '생리적 각성+인지적 해석'은 샤흐터-싱어, '시상-편도체의 빠른 경로'는 르두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캐논-바드는 동시에, 제임스-랑게는 먼저 몸, 샤흐터-싱어는 몸 뒤 해석, 르두는 빠른 편도체 경로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사례에서 B의 태도를 설명하는 부모 양육 유형은?

B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을 제시한다. B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①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유형
② 권위적(authoritative) 유형
③ 허용적(permissive) 유형
④ 방임적(uninvolved) 유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Baumrind의 부모 양육 유형 중 권위적 양육의 특징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핵심 사실 2: 자녀에게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을 제시한다.
핵심 사실 3: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핵심 개념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은 높은 반응성과 높은 요구도를 함께 보이는 유형이다. 따뜻하게 수용하면서도 분명한 기준과 일관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는 애정과 통제가 함께 높고, 자녀 의견 존중과 규칙 제시가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통제만 강한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권위적 양육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유형은 통제와 복종 요구는 강하지만 정서적 수용과 의견 존중이 낮다.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엄격한 복종을 요구하고 자녀 의견 반영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2번 O: 권위적(authoritative) 유형은 자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제시한다. 따뜻한 지지와 합리적 통제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 사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3번 X: 허용적(permissive) 유형은 애정과 수용은 높지만 통제와 규칙 제시는 약하다.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을 제시한다'가 허용적 유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따뜻하지만 규칙과 통제가 느슨한 경우에 해당한다.
4번 X: 방임적(uninvolved) 유형은 정서적 관여와 통제가 모두 낮다.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와 '일관된 원칙을 제시한다'가 모두 방임과 반대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지도나 애정 표현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권위주의적과 권위적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구분 기준은 따뜻함과 의견 존중의 유무이다. 이 사례의 핵심 단서는 '민감하게 반응', '따뜻하고 지지적', '의견 존중'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모 양육 유형 문제는 애정·반응성과 통제·요구도의 높고 낮음을 먼저 나눈다. 따뜻함과 규칙이 함께 높으면 권위적, 규칙만 높으면 권위주의적, 따뜻함만 높으면 허용적, 둘 다 낮으면 방임적이다.

암기 포인트

권위적은 따뜻함과 통제가 함께 높고, 권위주의적은 통제는 높지만 따뜻함은 낮다.

NoteBase

문 8. 다음 사례에서 사용된 설득 기법은?

한 사이비 종교의 신도 모집자들은 처음에 간단한 설문에 참여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간단한 정보를 얻는다. 신도 모집자들은 설문에 응한 사람들에게 차 한잔을 권하고, 나중에는 취미 활동이나 인생 토론을 하는 편안한 만남에 초대한다. 이러한 만남을 거듭하며 이들은 참석자들에게 노래, 모임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권유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긴 수련 과정이나 헌금을 요청한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던 참석자들은 어느새 열성적인 신도가 되어 간다.

①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

② 머리부터 들이밀기(door-in-the-face)

③ 문간에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④ 초두효과(primacy effec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은 요구를 먼저 수락하게 한 뒤 점차 더 큰 요구로 확장하는 설득 기법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처음에는 간단한 설문 참여처럼 부담이 작은 요청을 한다.
이후 차 한잔, 편안한 만남, 각종 활동 참여, 더 긴 수련 과정과 헌금처럼 요구 수준을 점차 높인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처음의 작은 승낙이 이후 더 큰 요청 수락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문간에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는 먼저 작은 부탁을 수락하게 한 뒤 그 일관성을 이용해 더 큰 부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설득 기법이다.
적용 요건은 초기 요청이 작고 수락 가능하며, 그 뒤의 요청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요청의 크기와 관여 수준이 처음에는 낮고 이후 점차 커지는지를 본다.
핵심은 처음의 사소한 동의가 이후 더 큰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후가정사고는 일이 벌어진 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처럼 대안을 상상하는 사고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결과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단계적 요청 수용이다. 틀린 표현은 설득 기법을 사후적 사고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작은 승낙을 발판으로 더 큰 승낙을 이끄는 기법이다.
② X: 머리부터 들이밀기는 먼저 큰 요구를 제시해 거절하게 한 뒤 더 작은 요구를 제시하는 기법이다. 이 사례는 반대로 작은 설문에서 시작해 점점 큰 요구로 간다. 틀린 표현은 큰 요구 후 작은 요구라는 구조를 적용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작은 요구 후 더 큰 요구라는 구조이다.
③ O: 문간에 발 들여놓기는 작은 요청을 수락한 사람이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면서 더 큰 요청도 수락하게 되는 현상이다. 설문 참여에서 시작해 모임, 활동, 수련, 헌금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에 해당한다.
④ X: 초두효과는 처음 제시된 정보가 인상 형성이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 사례는 정보 제시 순서의 인상 효과가 아니라 순차적 요청 확대를 이용한 설득이다. 틀린 표현은 첫 정보의 인상 문제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작은 부탁의 수락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설득 기법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을 반대로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②는 큰 요구를 먼저 내세운 뒤 양보하듯 작은 요구를 제시하는 방식이고, ③은 작은 요구를 먼저 수락시킨 뒤 더 큰 요구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설득 문제는 요청의 시작 크기와 다음 요청의 방향을 먼저 본다. 작은 부탁에서 큰 부탁으로 커지면 문간에 발 들여놓기이고, 큰 부탁에서 작은 부탁으로 낮아지면 머리부터 들이밀기이다.

암기 포인트

작게 승낙시키고 크게 확대하면 문간에 발 들여놓기이고, 크게 요구했다가 줄이면 머리부터 들이밀기이다.

NoteBase

문 9. 근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위를 야기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행위자의 내적 성향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상황은 과소평가하고 성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③ 어떤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자신의 성향에 귀인하고, 결과가 나쁘면 상황에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다른 사람의 행동은 성향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반면,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본귀인오류와 할인원리, 자기고양 편향, 행위자-관찰자 편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본귀인오류는 다른 사람의 행동 원인을 판단할 때 상황 요인보다 성향 요인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다.
할인원리는 어떤 행동을 설명할 만한 이유가 여러 개 있으면 특정 한 원인의 설명력을 낮추어 보는 원리이다.
자기고양 편향은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향에, 실패는 상황에 귀인하는 경향이다.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타인의 행동은 성향으로, 자신의 행동은 상황으로 더 잘 설명하는 경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행동을 설명할 이유가 여러 개 있을 때 내적 성향으로의 귀인이 약해진다는 설명은 근본귀인오류가 아니라 할인원리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근본귀인오류"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여러 원인이 가능하면 특정 원인, 특히 내적 원인의 설명력은 할인된다"이다.

② O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상황은 과소평가하고 성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라는 설명은 근본귀인오류의 핵심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좋은 결과는 자신의 성향에, 나쁜 결과는 상황에 귀인하는 경향은 근본귀인오류가 아니라 자기고양 편향이다.
틀린 부분은 "행동 결과가 좋으면 자신의 성향, 나쁘면 상황에 귀인"이라는 설명을 근본귀인오류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성공은 내적으로, 실패는 외적으로 돌리는 자기고양 편향"이다.

④ X
타인의 행동은 성향적 요인에,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은 행위자-관찰자 편향이다.
틀린 부분은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 요인에 귀인"까지 포함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근본귀인오류는 주로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보다 성향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가 모두 귀인 편향이라서 헷갈리기 쉽다. ③은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귀인 방향이 달라지는 자기고양 편향이고, ④는 행위자와 관찰자라는 위치 차이에 따라 귀인 방향이 달라지는 행위자-관찰자 편향이다. ①은 귀인 편향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을 때 한 원인의 힘을 낮추는 할인원리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 상황을 덜 보고 성향을 더 본다고 하면 근본귀인오류로 판단한다.
성공·실패의 결과 차이가 나오면 자기고양 편향,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 행위자-관찰자 편향, 여러 원인이 함께 제시되면 할인원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본귀인오류는 타인 행동을 성향 탓으로 보는 편향이고,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타인은 성향, 나는 상황으로 보는 편향이다.

NoteBase

문 10.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식(schema)이란 사람, 대상, 사상, 상황에 대해 조직화된 신념과 지식을 말한다.

② 단기기억은 외부 세계에서 입력되는 정보가 감각기관에 등록되어 짧은 기간 유지되는 기억이며, 여기에는 영상기억(iconic memory)과 음향기억(echoic memory)이 있다.

③ 단기기억은 정보를 20 ~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으나, 시연(rehearsal)을 하면 그 이상 유지할 수 있다.

④ 장기기억의 정보를 인출할 때 작용하는 원리 중 하나로 부호화 특수성 원리(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억의 단계별 구분에서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의 인출 원리와 도식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식(schema)은 사람, 대상, 사건, 상황에 대해 조직화된 지식 구조이다.
감각기억은 외부 자극이 감각기관 수준에 아주 짧게 등록되는 기억으로 영상기억과 음향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단기기억은 주의를 받아 들어온 정보를 제한된 용량 안에서 약 20~30초 정도 유지하는 기억이며, 시연을 하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부호화 특수성 원리는 장기기억 인출이 부호화 당시의 단서와 인출 단서의 일치 정도에 좌우된다는 원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도식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이미 조직되어 있는 신념과 지식의 틀을 말하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단기기억은 외부 세계에서 입력되는 정보가 감각기관에 등록되어 짧은 기간 유지되는 기억"이라는 표현이다.
영상기억과 음향기억을 포함하는 단계는 단기기억이 아니라 감각기억이다.
올바르게는 "감각기억은 외부 자극이 감각기관에 매우 짧게 등록되는 기억이며, 단기기억은 그중 주의를 받은 정보가 제한된 용량 안에서 잠시 유지되는 기억"이다.

③ O
단기기억의 지속 시간은 보통 20~30초 정도이며, 반복 시연을 하면 유지 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O
부호화 특수성 원리는 장기기억 인출에서 부호화 맥락과 인출 단서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감각기억과 단기기억은 둘 다 지속 시간이 짧아서 쉽게 섞인다. 그러나 "감각기관에 등록된다", "영상기억", "음향기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감각기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영상기억, 음향기억, 감각기관 등록이 나오면 먼저 감각기억인지 확인한다. 반대로 20~30초 유지, 제한된 용량, 시연이 나오면 단기기억으로 판단한다. 장기기억 인출에서 단서 일치를 말하면 부호화 특수성 원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영상·음향은 감각기억, 20~30초와 시연은 단기기억, 단서 일치는 부호화 특수성 원리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타당도는?

새로 개발한 지능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한 검사결과와의 상관을 확인한다.

①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②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③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④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새로 만든 검사의 점수를 이미 타당화된 유사 검사와 동시에 비교하는 경우가 준거관련타당도 중 공인타당도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인타당도: 새 검사를 현재 시점에서 이미 타당도가 확보된 준거검사와 함께 실시하고 두 결과의 상관으로 확인하는 타당도이다. 키워드는 동시 측정, 기존 유사 검사와의 상관이다.
구성타당도: 검사가 지능 같은 이론적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타당도이다. 키워드는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이다.
내용타당도: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 영역을 빠짐없이 대표하는지 보는 타당도이다. 키워드는 문항 대표성과 범위의 적절성이다.
안면타당도: 검사가 겉으로 보기에 측정 목적에 맞아 보이는지에 관한 타당도이다. 키워드는 표면적 그럴듯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례는 새 지능검사를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 검사와 같은 시점에 비교하고 상관을 확인한다. 이는 현재의 준거와 동시 상관을 보는 공인타당도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구성타당도'이다. 구성타당도는 지능이라는 구성개념을 실제로 잘 재는지를 확인하는 타당도이며, 유사 검사와의 단순 동시 상관 확인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 선지는 '공인타당도'로 고쳐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내용타당도'이다. 내용타당도는 지능검사 문항이 언어, 추리, 공간능력 등 측정 영역을 고르게 대표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사례처럼 외부의 기존 검사와 상관을 보는 방식은 내용타당도가 아니다. 이 선지는 '공인타당도'로 고쳐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안면타당도'이다. 안면타당도는 검사 문항이 겉으로 보기에 지능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말한다. 사례에는 겉보기 판단이 아니라 실제 검사결과 간 상관 확인이 제시되어 있다. 이 선지는 '공인타당도'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타당도 이름이 모두 익숙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한 검사결과와의 상관'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문항 대표성이나 겉보기 타당성이 아니라 준거와의 동시 비교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새 검사와 외부 준거를 비교하면 먼저 준거관련타당도를 떠올린다. 그 준거가 현재 시점의 기존 검사이면 공인타당도이고, 미래 성과를 예측하면 예언타당도이다. 문항 대표성을 묻으면 내용타당도, 구성개념 자체의 측정 적절성을 묻으면 구성타당도, 겉보기 적절성을 묻으면 안면타당도이다.

암기 포인트

공인타당도는 지금 함께 재서 비교하는 타당도이고, 내용타당도는 문항 범위, 구성타당도는 개념 적합성, 안면타당도는 겉보기 타당성이다.

NoteBase

문 12. DSM-5-TR에서 분류한 성격장애 중 군집 C(cluster C)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성격장애
② 회피성(avoidant) 성격장애
③ 의존성(dependent) 성격장애
④ 편집성(paranoid) 성격장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SM-5-TR의 성격장애 3군 분류에서 각 성격장애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군집 A는 기이하고 괴상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성격장애군으로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속한다.
군집 B는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이 두드러지는 성격장애군으로 반사회성, 경계선,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한다.
군집 C는 불안과 두려움이 두드러지는 성격장애군으로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강박성 성격장애는 질서정연함, 완벽주의, 통제에 대한 집착이 특징이며 DSM-5-TR에서 군집 C에 속한다. 틀린 표현은 "군집 C에 속하지 않는"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강박성 성격장애는 군집 C에 속한다"이다.
② X. 회피성 성격장애는 거절과 비난에 대한 과민성, 사회적 위축, 부적절감이 핵심이므로 군집 C에 속한다. 틀린 표현은 "군집 C에 속하지 않는"이다. 올바르게는 "회피성 성격장애는 군집 C에 속한다"이다.
③ X. 의존성 성격장애는 과도하게 보살핌을 받으려 하고 분리와 독자적 결정에 불안을 느끼는 양상이 특징이어서 군집 C에 속한다. 틀린 표현은 "군집 C에 속하지 않는"이다. 올바르게는 "의존성 성격장애는 군집 C에 속한다"이다.
④ O.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지속되는 성격장애로 DSM-5-TR에서 군집 A에 속한다. 따라서 군집 C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발문에 맞는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군집 C에 속하는 세 장애를 한 묶음으로 외우지 못하면 ① 강박성과 ④ 편집성을 혼동하기 쉽다. 이름만 보고 둘 다 경직된 성격으로 느껴져 헷갈리지만, 강박성은 불안 기반의 통제와 완벽주의여서 군집 C이고 편집성은 의심과 불신이 핵심이어서 군집 A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격장애 군집 문제는 먼저 군집별 핵심 정서를 잡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기이함과 의심이면 군집 A, 극적이고 충동적이면 군집 B, 불안과 두려움이면 군집 C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군집 C는 회피성-의존성-강박성이고, 편집성은 군집 A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사례의 영아를 설명하는 에인스워스(M. Ainsworth)의 애착 유형은?

영아는 겉으로 평온하고 순한 아이로 보일 수 있다. 양육자가 있을 때 영아와 양육자 간 상호 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영아는 양육자가 방을 떠났을 때나 돌아왔을 때, 감정의 큰 변화를 경험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장난감에만 집중한다.

① 안정(secure) 애착
② 회피(anxious-avoidant) 애착
③ 저항(anxious-ambivalent/resistant) 애착
④ 혼란(disorganized) 애착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나타나는 애착 유형의 행동 특징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은 양육자가 있어도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핵심 사실은 양육자가 방을 떠나거나 돌아와도 정서 변화와 불안 반응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핵심 사실은 양육자보다 장난감에 더 집중한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회피 애착은 양육자와의 애착 행동을 겉으로 거의 드러내지 않고, 분리나 재회 때도 무덤덤해 보이는 유형이다.
적용 요건은 양육자에 대한 접근이나 접촉 추구가 적고, 분리 불안과 재회 반응이 약하며, 주변 사물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영아가 양육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분리와 재회에도 무관심해 보이며, 장난감에 주의를 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시문은 이 특징을 모두 보여 주므로 회피 애착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안정 애착은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아 탐색하되, 분리 시 불안을 보이고 재회 시 양육자에게 다가가 위안을 얻는다. 이 사례는 분리와 재회에 큰 정서 반응이 없으므로 안정 애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안정 애착'이며, 올바르게는 '분리 시 불안을 보이고 재회 시 접촉을 추구하는 경우가 안정 애착'이다.
② O: 회피 애착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적고, 분리와 재회에 무덤덤하며, 장난감 같은 환경 자극에 더 주의를 두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시문은 이 행동 특징과 일치한다.
③ X: 저항 애착은 양육자와 떨어질 때 매우 불안해하고, 재회 후에도 쉽게 진정되지 않으며 매달리면서도 저항하는 양가적 반응을 보인다. 이 사례는 불안이 거의 없으므로 저항 애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저항 애착'이며, 올바르게는 '강한 분리 불안과 양가적 재회 반응이 나타날 때 저항 애착'이다.
④ X: 혼란 애착은 접근과 회피가 뒤섞이거나 얼어붙음, 방향 상실, 두려움 같은 비조직적 행동이 핵심이다. 이 사례는 무관심하고 정서 반응이 약한 모습이지 혼란된 행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혼란 애착'이며, 올바르게는 '모순되고 비조직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혼란 애착'이다.

오답 포인트

겉으로 평온하고 순해 보인다는 표현 때문에 ① 안정 애착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안정 애착은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류와 재회 시 접근 행동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의 함정은 '차분함'과 '무관심'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애착 유형 사례형은 분리 때 반응, 재회 때 반응,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먼저 본다. 분리와 재회에 반응이 약하고 장난감에만 집중하면 회피 애착, 분리 불안이 크고 재회 후에도 매달리며 화를 내면 저항 애착, 재회 시 위안을 얻으면 안정 애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회피 애착은 '분리에도 덤덤, 재회에도 무심, 장난감에 집중'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다음 사례에서 A가 드러내는 특징을 반영하는 DSM-5-TR 기반의 심리장애는?

30대인 A는 걱정이 많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종종 느낀다. 예를 들면, 은행계좌가 해킹당하지 않을까,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을 자주 한다. 사소하게는 입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물건을 비싸게 사면 어쩌나,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① 공황장애(panic disorder)
② 광장공포증(agoraphobia)
③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④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여러 일상 영역에 걸친 과도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걱정을 범불안장애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는 은행계좌 해킹, 가족의 건강과 사고, 입냄새, 물건 가격, 가전제품 고장처럼 다양한 생활 영역에 대해 계속 걱정한다.
걱정을 멈추기 어렵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능적 불편이 나타난다.

핵심 개념

범불안장애는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일상사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지속되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이 반복되는 것이 핵심이고, 광장공포증은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는 장소나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핵심이며, 강박장애는 침투적 사고와 이를 줄이기 위한 반복행동이 핵심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의 핵심은 걱정 대상이 매우 넓고 사소한 일상 문제까지 퍼져 있으며, 걱정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이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공황발작, 특정 장소 회피, 침투사고를 중화하려는 반복행동은 제시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황장애의 핵심은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과 그 뒤에 이어지는 발작 재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례에는 갑자기 극심한 공포가 치솟거나 심계항진, 호흡곤란 같은 발작 삽화가 없다. 틀린 표현은 '공황장애'이고, 올바르게는 여러 생활영역에 대한 만성적 걱정을 보이는 범불안장애이다.

② X
광장공포증은 대중교통, 넓은 공간, 군중, 혼자 외출처럼 탈출이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장애이다. 사례에는 특정 장소나 상황에 대한 회피가 드러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광장공포증'이고, 올바르게는 장소 회피가 아니라 전반적 걱정이 중심인 범불안장애이다.

③ O
범불안장애는 여러 영역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지속되고, 그 걱정을 멈추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고통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양상과 맞는다. 제시문은 걱정 주제가 광범위하고 통제 곤란이 뚜렷하므로 범불안장애에 해당한다.

④ X
강박장애는 원치 않는 침투사고가 반복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확인, 세척, 반복적 점검 같은 강박행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핵심이다. 사례에는 특정 침투사고나 의례적 행동이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강박장애'이고, 올바르게는 반복행동 없는 광범위한 걱정이 중심인 범불안장애이다.

오답 포인트

불안하다는 공통점만 보고 공황장애나 강박장애로 넓게 묶어 버리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불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불안의 양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발작형인지, 장소회피형인지, 침투사고와 반복행동형인지, 여러 생활영역에 대한 만성적 걱정형인지를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불안장애 문제는 먼저 불안의 형태를 본다. 갑작스러운 발작이 핵심이면 공황장애, 특정 장소 회피가 핵심이면 광장공포증, 침투사고와 의례행동이 핵심이면 강박장애, 여러 생활영역에 대한 통제하기 어려운 지속적 걱정이 핵심이면 범불안장애이다.

암기 포인트

넓고 오래 걱정하면 범불안장애, 갑자기 터지면 공황장애, 장소를 피하면 광장공포증, 반복행동이 붙으면 강박장애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용어는?

두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루한 단순 과제를 30분 동안 반복하게 한 후, 차례를 기다리는 다음 참가자에게 '실험이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A조건의 참가자에게는 1,000원을, B조건의 참가자에게는 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후, 이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그 과제가 얼마나 재미있었느냐고 질문한 결과, A조건이 B조건보다 그 과제가 더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①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
②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③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④ 동조(conformit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루한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태도를 바꾸는 인지 부조화의 사례를 변별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참가자들은 지루한 단순 과제를 30분 동안 반복하였다.
핵심 사실 2: 다음 참가자에게 실험이 흥미로웠다고 말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핵심 사실 3: 1,000원을 받은 A조건이 50,000원을 받은 B조건보다 과제를 더 재미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외적 보상이 작은 조건에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인지 부조화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때 그 긴장을 줄이기 위해 태도나 인지를 바꾸는 현상이다.
적용 요건은 행동을 이미 했고, 그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외적 정당화가 약하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거짓으로 긍정적 평가를 말한 행동과 실제로는 지루했던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줄였는지를 본다.
핵심은 1,000원처럼 보상이 작을수록 외적 이유가 부족하므로 스스로 과제를 재미있었다고 믿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기 쉽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적 촉진은 타인의 실제적 또는 암묵적 존재가 과제 수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수행 변화가 아니라 지루한 과제를 재미있었다고 태도를 바꾼 점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촉진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태도 정당화에 따른 인지 부조화이다.
② X: 집단 극화는 집단 토의 후 구성원의 판단이 더 극단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사례에는 집단 토의나 집단 의사결정이 없다. 틀린 표현은 집단 상호작용으로 설명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적은 보상 때문에 개인의 태도가 변한 인지 부조화이다.
③ O: 인지 부조화에 해당한다. 지루한 과제를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흥미로웠다고 말했는데 보상이 1,000원으로 작으면 그 거짓말을 충분히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도 과제가 더 재미있었다고 믿는 방향으로 태도를 조정하게 된다.
④ X: 동조는 집단 압력이나 다수 의견에 맞추어 판단이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다. 이 사례는 다수의 압력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과 태도의 불일치를 줄인 것이다. 틀린 표현은 집단 압력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불충분한 외적 정당화에 따른 인지 부조화이다.

오답 포인트

오답은 1,000원과 50,000원이라는 금액 차이에만 끌려 보상이 큰 쪽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보상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보상이 작아서 거짓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때 태도 변화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실제 행동과 이후 태도 보고가 어긋나고, 외적 보상이 작을수록 태도 변화가 커지면 인지 부조화를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타인의 존재는 사회적 촉진, 집단 토의는 집단 극화, 다수 압력은 동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보상이 작을수록 자기 정당화가 커지면 인지 부조화이다.

NoteBase

문 16. 제니스(I. Janis)가 제시한 집단사고(groupthink)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시적인 리더
ㄴ. 집단의 높은 응집성
ㄷ.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집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니스의 집단사고가 어떤 집단 조건에서 잘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단사고는 만장일치와 응집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비판적 검토가 약해져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현상이다.
지시적인 리더는 구성원의 반대 의견을 위축시켜 집단사고를 강화한다.
집단의 높은 응집성은 합의 압력을 높여 이견 제시를 어렵게 만든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집단은 대안 정보와 비판적 피드백이 차단되어 집단사고가 더 쉽게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집단사고의 원인으로 맞지만, ㄷ을 빠뜨린 점이 틀리다.
- 외부로부터 단절된 집단 역시 집단사고를 유발하는 대표 조건이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X
-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을 제외한 점이 틀리다.
- 집단의 높은 응집성은 집단사고의 핵심 발생 조건이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X
-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을 제외한 점이 틀리다.
- 지시적인 리더는 구성원의 독립적 판단을 약화시키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④ O
- ㄱ, ㄴ, ㄷ은 모두 제니스가 제시한 집단사고의 발생 조건에 해당한다.
- 지시적 리더십, 높은 응집성, 외부와의 단절은 모두 비판적 검토를 약화시켜 집단사고를 촉진한다.

오답 포인트

집단사고를 단순히 응집성 하나의 문제로만 외우면 ㄱ이나 ㄷ을 빠뜨리기 쉽다. 이 문항은 리더의 지시성, 집단 내부 응집성, 외부 정보 차단을 함께 묶어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사고 문항은 비판적 검토를 막는 조건인지로 판단한다. 리더가 지시적이고, 집단이 지나치게 응집되어 있으며, 외부 의견이 차단되면 집단사고의 발생 조건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집단사고는 지시적 리더, 높은 응집성, 외부 단절의 조합에서 강화된다.

NoteBase

문 1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강아지가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게 하기 위해 고전적 조건형성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다. A는 강아지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어 음식과 종소리를 연합시키는 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강아지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① 고전적 조건형성을 훈련하기 전에 종소리는 '중성 자극'이어야 한다.

② 음식과 종소리를 연합하기 전에 음식에 대해 흘린 침은 '무조건 반응'에 해당된다.

③ 훈련 후 강아지가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게 되었다면, 종소리는 '무조건 자극'이 된 것이다.

④ 고전적 조건형성이 성공한 후,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종소리만 들려주면, 종소리에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중성 자극,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 소거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음식은 원래 강아지의 침 분비를 일으키는 자극이다.
핵심 사실 2: 종소리는 훈련 전에는 침 분비를 일으키지 않는 자극이다.
핵심 사실 3: 음식과 종소리를 반복해서 함께 제시한 뒤에는 종소리만으로도 침 분비가 나타난다.

핵심 개념

고전적 조건형성은 원래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중성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반복 연합되면서 조건 자극이 되고, 그 결과 조건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학습이다.
적용 요건은 훈련 전 자극의 기능과 훈련 후 자극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각 자극이 훈련 전과 훈련 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음식은 원래부터 침 분비를 유발하므로 무조건 자극이고, 종소리는 처음에는 중성 자극이지만 연합 이후에는 조건 자극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훈련 전에 종소리는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일으키지 않으므로 중성 자극이 맞다.

② O
음식과 종소리를 연합하기 전에도 음식만 보고 침을 흘리는 반응은 학습 없이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무조건 반응이 맞다.

③ X
틀린 표현은 '무조건 자극'이다. 훈련 후 강아지가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게 되었더라도 종소리는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조건 자극이 된다. 올바르게는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 되고, 종소리에 대한 침 분비는 조건 반응이 된다'이다.

④ O
고전적 조건형성이 성립한 뒤 종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주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종소리에 대한 침 분비가 점차 사라지는데, 이를 소거라고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게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혼동은 종소리가 침 분비를 일으킨다는 결과만 보고 종소리를 무조건 자극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무조건 자극은 학습 이전부터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고, 종소리는 학습을 거친 뒤에야 반응을 일으키므로 조건 자극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적 조건형성 사례는 먼저 훈련 전과 훈련 후를 나눈 다음, 원래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인지 여부를 본다. 원래 반응을 일으키면 무조건 자극, 원래는 아니었지만 연합 후 반응을 일으키면 조건 자극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음식은 끝까지 무조건 자극이고, 종소리는 중성 자극에서 조건 자극으로 바뀐다.

NoteBase

문 18. 자아방어기제(ego defense mechanis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인(denial)은 수용하기 힘든 원초적 욕구나 불쾌한 경험을 무의식에 눌러두는 것이다.

② 합리화(rationalization)는 용납하기 어려운 감정, 사고, 행동 등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③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상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④ 전위(displacement)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위험한 대상에게 표출하지 않고 안전한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아방어기제의 핵심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인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어기제이다.
억압은 수용하기 어려운 욕구나 경험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방어기제이다.
합리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어기제이다.
반동형성은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이나 감정과 정반대의 태도나 행동을 드러내는 방어기제이다.
전위는 원래 대상에게 향한 감정이나 충동을 더 안전한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방어기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부인을 '수용하기 힘든 원초적 욕구나 불쾌한 경험을 무의식에 눌러두는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이 설명은 부인이 아니라 억압의 정의이다.
부인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사실이나 경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합리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정당화하는 방어기제이므로 옳다.

③ O
반동형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상태나 충동에 대해 그와 반대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옳다.

④ O
전위는 위협적 대상에게 직접 표출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욕구를 더 안전한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부인과 억압을 함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처리하는 방어기제'로만 외우면 ①처럼 혼동하기 쉽다. 부인은 현실 부정, 억압은 무의식적 밀어 넣기라는 차이를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어기제 문제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본다.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 무의식으로 밀어 넣으면 억압, 반대 행동을 하면 반동형성, 대상만 바뀌면 전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인은 현실 부정, 억압은 무의식 억눌림, 반동형성은 정반대 행동, 전위는 대상 바꾸기이다.

NoteBase

문 19.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가) 호르몬의 과다 분비 상태는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고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세로토닌(serotonin)
② 도파민(dopamine)
③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④ 코르티솔(cortisol)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가하는 호르몬과 그 단기 효과, 그리고 장기 과다 분비의 건강 영향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가 증가하는 대표적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혈당을 높이고 장기 과다 분비 시 면역기능 저하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 수면, 식욕 조절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은 보상, 동기, 쾌감, 강화와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이다.
아세틸콜린은 근육 수축, 부교감신경 기능, 기억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세로토닌은 주로 기분 안정과 정서 조절에 관련된다. 틀린 표현은 스트레스가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투쟁·도피 반응을 돕는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세로토닌이 아니라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반응과 혈당 상승, 장기적 건강 악화와 연결된다.
② X: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 쾌감의 핵심 신경전달물질이다. 틀린 표현은 도파민을 장기 스트레스의 대표 호르몬처럼 제시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장기 스트레스에서 문제되는 것은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이다.
③ X: 아세틸콜린은 근육 수축과 부교감신경, 기억 기능에 관련된다. 틀린 표현은 아세틸콜린이 혈당을 높이고 투쟁·도피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과 면역 저하 설명에 맞는 것은 코르티솔이다.
④ O: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시 분비가 증가하여 에너지 동원을 위해 혈당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 장기간 과다 분비되면 부정적 정서 반응과 면역기능 저하를 일으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문 설명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해 익숙하지만, 둘 다 보상이나 기분 조절 쪽 개념이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혈당 상승, 투쟁·도피 반응, 장기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기능 약화이며, 이 조합은 코르티솔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스트레스 반응, 혈당 상승, 장기 과다 분비, 면역기능 저하가 함께 나오면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인지 확인한다. 기분 안정이면 세로토닌, 보상과 동기면 도파민, 근육 수축과 부교감 기능이면 아세틸콜린, 스트레스와 대사 반응이면 코르티솔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코르티솔은 스트레스·혈당·면역저하, 세로토닌은 기분안정, 도파민은 보상, 아세틸콜린은 근육·기억이다.

NoteBase

문 20. 향정신성 약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LSD와 대마초(marijuana)는 환각제로 분류된다.

② 암페타민과 코카인은 진정 작용을 한다.

③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은 흥분제로 분류된다.

④ 아편과 헤로인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향정신성 약물을 환각제, 흥분제, 진정제, 아편류로 구분하는 기본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각제는 지각과 감각 경험을 왜곡하거나 환각을 유발하는 약물이다. 이 문항의 분류에서는 LSD와 대마초가 여기에 포함된다.
흥분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높여 각성, 활동성,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암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이 대표적이다.
진정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낮춰 긴장을 줄이고 진정 또는 억제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알코올이 대표적이다.
아편과 헤로인은 아편류로서 진통과 도취를 유발하며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성질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LSD와 대마초는 이 문항의 약물 분류에서 환각제로 본다. 둘 다 지각 왜곡과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범주에 속하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진정 작용"이다. 암페타민과 코카인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하는 흥분제이므로 올바르게는 "암페타민과 코카인은 흥분 작용을 한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은 흥분제로 분류된다"이다. 니코틴과 카페인은 흥분제이지만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진정제이므로 올바르게는 "니코틴과 카페인은 흥분제이고 알코올은 진정제이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이다. 아편과 헤로인은 각성을 높이는 약물이 아니라 억제와 진통, 도취를 일으키는 아편류이므로 올바르게는 "아편과 헤로인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흥분제와 진정제를 한꺼번에 외우면 ③처럼 일부만 맞는 선지에 흔들리기 쉽다. 니코틴과 카페인이 흥분제라는 사실 때문에 알코올까지 같은 범주로 묶거나, 아편과 헤로인을 강한 약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흥분제로 오인하는 점이 대표적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약물 이름이 나오면 먼저 중추신경계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지각을 왜곡하는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각성을 높이면 흥분제, 활동을 억제하면 진정제, 지각 왜곡이 중심이면 환각제로 분류된다.

암기 포인트

LSD·대마초는 환각, 암페타민·코카인·니코틴·카페인은 각성, 알코올·아편·헤로인은 억제이다.

NoteBase

문 21. 수면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REM 수면 단계에서는 뇌파가 깨어 있는 상태와 유사하지만 근육은 이완되어 있어 역설적 수면(paradoxical sleep)이라고도 한다.

② non-REM 수면의 3 ~ 4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보다 뇌파의 크기가 작고 파동이 빠르다.

③ 생생한 꿈은 REM 수면보다는 non-REM 수면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④ 수면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REM 수면 시간은 점차 짧아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REM 수면과 non-REM 수면의 핵심 특징, 그리고 non-REM 단계가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뇌파 변화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EM 수면은 뇌파가 각성 상태와 비슷하게 활발하지만 골격근 긴장이 크게 떨어져 역설적 수면이라고 불리는 단계이다.
non-REM 1~2단계는 비교적 얕은 수면이고, 3~4단계는 서파수면으로 갈수록 뇌파는 느려지고 진폭은 커진다.
생생한 꿈은 주로 REM 수면에서 나타나고, 수면 후반으로 갈수록 REM 지속시간은 길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REM 수면에서는 뇌 활동이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하게 활발하지만 근육은 이완되어 움직임이 억제된다. 그래서 역설적 수면이라고 부르는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뇌파의 크기가 작고 파동이 빠르다"이다. 실제로는 non-REM 3~4단계로 갈수록 델타파가 나타나 뇌파 진폭은 커지고 파동은 느려진다.
③ X: 틀린 부분은 "생생한 꿈은 REM 수면보다는 non-REM 수면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이다. 실제로는 생생하고 이야기 구조를 가진 꿈은 주로 REM 수면에서 더 흔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REM 수면 시간은 점차 짧아진다"이다. 실제로는 수면주기가 반복될수록 REM 수면 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깊은 non-REM 수면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오답 포인트

REM을 "깊이 잠든 단계"로만 막연히 외우면 ①의 각성 유사 뇌파를 놓치기 쉽다. 또 깊은 수면일수록 뇌파가 더 느리고 커진다는 서파수면 특징을 반대로 기억하면 ②에 걸리기 쉽고, 꿈과 REM의 연결 및 수면 후반부 REM 증가를 혼동하면 ③, ④를 잘못 고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면 단계 문제에서는 먼저 REM인지 non-REM인지 나눈다. 그다음 REM은 각성 유사 뇌파, 근육 이완, 생생한 꿈으로 판단하고, 깊은 non-REM은 느리고 큰 서파로 판단하면 된다. 수면주기 후반일수록 REM이 늘어난다는 흐름까지 함께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REM은 뇌는 깨어 있는 듯하고 몸은 풀려 있으며 꿈은 선명하다. 깊은 non-REM은 뇌파가 느리고 크며, 밤이 갈수록 REM은 길어진다.

NoteBase

문 22. (가) ~ (라)의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A는 자동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짜증스럽게 들리는 경고음을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나) B의 늦은 귀가가 잦아지자 B의 부모는 B가 좋아하는 야식을 2주간 금지시켰더니 그 후로는 B가 늦게 귀가하는 것이 사라진다.
(다) C는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출근한다. 그 옷이 멋있다고 동료들이 부러워한 이후 C는 그 옷을 입고 출근하는 날이 많아진다.
(라) D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이 심하다. 이에 선생님이 D에게 일주일간 방과 후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일주일 후 D는 수업 시간에 더 이상 떠들고 장난치지 않게 된다.

① (가): 부적강화, (나): 정적강화, (다): 부적처벌, (라): 정적처벌
② (가): 정적강화, (나): 부적처벌, (다): 정적처벌, (라): 부적강화
③ (가): 부적처벌, (나): 정적처벌, (다): 정적강화, (라): 부적강화
④ (가): 부적강화, (나): 부적처벌, (다): 정적강화, (라): 정적처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에서 행동 뒤에 무엇이 더해지거나 제거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행동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정적강화·부적강화·정적처벌·부적처벌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가)는 안전벨트를 매자 짜증스러운 경고음이 사라지고 안전벨트 착용 행동이 유지되는 사례이다.
(나)는 늦은 귀가 뒤 좋아하는 야식이 제거되고 늦은 귀가 행동이 줄어드는 사례이다.
(다)는 멋있다는 동료의 반응이 추가되고 그 옷을 입는 행동이 늘어나는 사례이다.
(라)는 방과 후 화장실 청소라는 불쾌한 과제가 추가되고 떠들고 장난치는 행동이 줄어드는 사례이다.

핵심 개념

정적강화는 바람직한 행동 뒤에 좋은 자극을 더해 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부적강화는 바람직한 행동 뒤에 싫은 자극을 제거해 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적처벌은 문제행동 뒤에 싫은 자극을 더해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부적처벌은 문제행동 뒤에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해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NoteBase

적용 기준

판단 기준은 자극의 성격 자체가 아니라 자극을 더했는지 제거했는지와 행동 빈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이다. 제거하여 늘어나면 부적강화이고, 제거하여 줄어들면 부적처벌이며, 더하여 늘어나면 정적강화이고, 더하여 줄어들면 정적처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경고음이라는 혐오자극이 제거되어 안전벨트 착용이 늘어나는 부적강화는 맞다. 그러나 (나)는 좋아하는 야식을 빼앗아 늦은 귀가를 줄였으므로 정적강화가 아니라 부적처벌이다. (다)는 칭찬과 부러움이 추가되어 행동이 증가했으므로 부적처벌이 아니라 정적강화이다. 따라서 ①은 (나), (다)의 연결이 틀리다.
② X: (가)는 좋은 자극을 더한 것이 아니라 싫은 경고음을 없앤 것이므로 정적강화가 아니라 부적강화이다. (나)는 부적처벌로 맞다. (다)는 칭찬이 더해져 행동이 늘어난 것이므로 정적처벌이 아니라 정적강화이다. (라)는 청소라는 불쾌한 과제를 더해 행동을 줄였으므로 부적강화가 아니라 정적처벌이다.
③ X: (가)는 안전벨트 착용 후 혐오자극이 제거되므로 부적처벌이 아니라 부적강화이다. (나)는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행동을 줄였으므로 정적처벌이 아니라 부적처벌이다. (다)는 정적강화로 맞다. (라)는 불쾌한 과제를 추가해 행동을 줄였으므로 부적강화가 아니라 정적처벌이다.
④ O: (가)는 부적강화, (나)는 부적처벌, (다)는 정적강화, (라)는 정적처벌로 모두 정확하다. 각 사례가 자극의 추가·제거와 행동의 증가·감소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정적·부적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외우다가 자주 틀린다. 정적·부적은 자극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자극을 더했는지 뺐는지를 뜻하고, 강화·처벌은 행동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뜻한다. 특히 (가)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는 점만 보고 보상처럼 오해하기 쉽고, (나)는 벌을 준 상황이라 정적처벌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문제에서는 먼저 행동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강화와 처벌을 가른다. 그다음 행동 뒤에 자극이 추가되었는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해 정적과 부적을 가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더해서 늘면 정적강화, 빼서 늘면 부적강화, 더해서 줄면 정적처벌, 빼서 줄면 부적처벌이다.

NoteBase

문 23.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2)의 임상 척도와 측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척도 7(강박증, Pt): 강박적 특성, 두려움과 불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불행감, 주의집중 문제 등을 평가하는 척도

② 척도 7(편집증, Pt): 대인관계 민감성, 의심, 도덕적 자기정당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등 편집증적 특성을 평가하는 척도

③ 척도 9(우울증, Ma): 비관주의, 절망감, 신체적 불편감, 걱정이나 긴장, 흥미의 상실 등을 평가하는 척도

④ 척도 9(반사회성, Ma): 사회적 · 도덕적 규범 무시 경향, 가정 문제, 사회적 소외, 삶에 대한 만족감 결여 등을 평가하는 척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MMPI-2 임상척도의 번호, 약어, 척도명이 정확히 대응하는지와 각 척도가 측정하는 대표 증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척도 7 Pt는 psychasthenia로, 강박적 사고와 불안, 자기의심, 죄책감, 집중곤란처럼 불안-강박 스펙트럼의 긴장을 본다.
척도 6 Pa는 paranoia로, 대인관계 민감성, 의심, 피해의식, 타인 비난 같은 편집증적 경향을 본다.
척도 2 D는 depression으로, 비관주의, 절망감, 흥미 상실, 걱정, 긴장 같은 우울 증상을 본다.
척도 4 Pd는 psychopathic deviate로, 사회적 규범 무시, 가족 갈등, 권위와의 마찰, 소외감을 본다.
척도 9 Ma는 hypomania로, 과활동성, 들뜸, 충동성, 과도한 자신감처럼 경조증적 활성화를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척도 7 Pt는 강박적 특성, 불안, 자기의심, 죄책감, 집중곤란을 평가하는 척도이므로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척도 7(편집증, Pt)"이다.
편집증적 특성은 척도 6 Pa에 해당하고, 척도 7 Pt는 편집증이 아니라 강박증적 불안과 자기의심을 본다.

③ X
틀린 부분은 "척도 9(우울증, Ma)"이다.
비관주의, 절망감, 신체적 불편감, 걱정, 흥미 상실은 척도 2 D의 우울증 설명에 가깝다. 척도 9 Ma는 우울증이 아니라 경조증적 과활동성과 들뜬 상태를 평가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척도 9(반사회성, Ma)"이다.
사회적·도덕적 규범 무시, 가정문제, 사회적 소외는 척도 4 Pd의 반사회성 또는 정신병질적 일탈 설명에 가깝다. 척도 9 Ma는 반사회성이 아니라 경조증적 활성화를 본다.

오답 포인트

②, ③, ④는 실제 증상 설명 자체는 익숙하지만 척도 번호와 약어를 바꿔 끼운 함정이다. 특히 ③은 우울증 내용을 Ma에 붙이고, ④는 Pd의 반사회성 내용을 Ma에 붙여 번호-약어-척도명을 함께 외우지 않았을 때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번호-약어-척도명이 맞는지 확인한 뒤 대표 키워드로 다시 검증하면 된다. 7-Pt는 강박과 불안, 6-Pa는 의심과 피해의식, 2-D는 우울, 4-Pd는 규범 위반과 소외, 9-Ma는 과활동과 들뜸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7-Pt는 불안·강박, 6-Pa는 편집·의심, 2-D는 우울, 4-Pd는 반사회성, 9-Ma는 경조증적 과활동이다.

NoteBase

문 24. 에릭슨(E.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후 만 1세에서 3세 무렵에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basic trust)을 성취해야 한다.

② 생후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율성(autonomy)을 발달시켜야 한다.

③ 청소년기에는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주도성(initiative)을 배워야 한다.

④ 초기 성인기에는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며 타인과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친밀감(intimacy)을 습득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 단계에서 연령대와 핵심 과업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에릭슨은 생애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심리사회적 위기를 제시하였다. 영아기 생후 1년 무렵은 기본적 신뢰 대 불신, 만 1세에서 3세 무렵은 자율성 대 수치심·의심, 만 3세에서 6세 무렵은 주도성 대 죄책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 초기 성인기는 친밀감 대 고립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만 1세에서 3세 무렵"과 basic trust를 연결한 부분이다. 기본적 신뢰감은 영아기 생후 1년 무렵에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돌봄을 받으며 형성된다. 올바르게는 만 1세에서 3세 무렵의 핵심 과업은 자율성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자율성을 발달시킨다고 한 부분이다. 자율성은 유아기인 만 1세에서 3세 무렵의 과업이고, 만 3세에서 6세 무렵에는 스스로 계획하고 시도하는 주도성이 핵심이다. 올바르게는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주도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청소년기의 과업을 주도성이라고 한 부분이다. 청소년기의 핵심은 미래 계획 자체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역할혼미를 극복해야 한다.

4번: O. 초기 성인기의 핵심 과업은 친밀감 대 고립이다. 자아정체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므로, 4번의 설명이 에릭슨의 단계와 정확히 대응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서로 인접한 발달단계의 과업을 바꾸어 놓은 점이다. 1번은 기본적 신뢰와 자율성의 시기를 섞었고, 2번은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꾸었으며, 3번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을 학령전기의 주도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에릭슨 문항은 먼저 연령대를 잡고 그다음 단계쌍을 대응시키면 된다. 생후 1년은 신뢰, 1~3세는 자율성, 3~6세는 주도성, 청소년기는 정체감, 초기 성인기는 친밀감으로 연결하면 선지의 오류가 바로 드러난다.

암기 포인트

에릭슨의 앞 단계 흐름은 신뢰 → 자율성 → 주도성 → 정체감 → 친밀감이다.

NoteBase

문 25. 기억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친구가 항상 쓰는 향수 냄새가 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친구가 떠오르는 것은 외현기억(explicit memory)에 해당된다.

② 역대 올림픽 개최지를 알고 있는 것은 의미기억(semantic memory)에 해당된다.

③ 3년 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던 것에 대한 기억은 일화기억(episodic memory)에 해당된다.

④ 컴퓨터 자판을 능숙하게 치는 것은 연습을 통해 습득된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에 해당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의 구별, 그리고 의미기억·일화기억·절차기억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현기억: 의식적으로 사실이나 경험을 떠올리는 기억이다. / 결정 차이축: 의식적 회상이 필요한가 / 키워드: 의식적 인출
암묵기억: 의식적 회상 없이 단서, 점화, 반복이 자동으로 반응이나 수행에 영향을 주는 기억이다. / 결정 차이축: 자동 활성화인가 / 키워드: 자동 연상
의미기억: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일반 지식과 사실에 대한 기억이다. / 결정 차이축: 맥락 없는 사실 지식인가 / 키워드: 지식
일화기억: 시간과 장소 맥락이 있는 개인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다. / 결정 차이축: 언제 어디서의 경험인가 / 키워드: 경험
절차기억: 반복 연습으로 익힌 기술과 수행 방식에 대한 기억이다. / 결정 차이축: 할 줄 아는 기술인가 / 키워드: 숙련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외현기억'이라는 표현이다. 향수 냄새라는 단서가 주어졌을 때 친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의식적으로 사실을 회상하는 외현기억보다 점화와 연상에 가까운 암묵기억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자동적으로 친구가 떠오르는 것은 암묵기억에 가깝다'라고 정리한다.
② O: 역대 올림픽 개최지를 아는 것은 특정 개인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사실 지식이므로 의미기억에 해당한다.
③ O: 3년 전 제주도 가족여행은 시간과 장소가 포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이므로 일화기억에 해당한다.
④ O: 컴퓨터 자판을 능숙하게 치는 것은 반복 연습으로 형성된 기술 수행 능력이므로 절차기억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친구가 떠오른다'는 결과만 보고 외현기억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선지의 핵심 단서는 '자동적으로'이다. 의식적으로 떠올린 기억인지, 단서에 의해 자동 활성화된 연상인지가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을 가르는 지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일반 상식이나 사실 지식이 나오면 의미기억, 개인의 시간·장소가 있는 경험이 나오면 일화기억, 반복 연습으로 익힌 기술이 나오면 절차기억으로 본다. 냄새나 분위기 같은 단서 때문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현상은 외현기억보다 암묵기억이나 점화 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실은 의미기억, 경험은 일화기억, 기술은 절차기억, 자동 연상은 암묵기억, 의식적 회상은 외현기억이다.

NoteBase